

	<h1>보도자료</h1>	2022. 1. 28. (금)
<p>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 ※ 담당 : 이건상 팀장 (010-2652-2371)</p>		

## 농민 · 예술단체 등 개혁시민그룹 전면에 나선다!

- 농업푸드플랜, 예술인연대, 영호남교수단 등 지지 선언 잇따라
- 소방인, 기능장 등 직능단체도 가세... '지지 상승 청신호'

20대 대선 민심의 분수령이 될 설 연휴를 앞두고 농민, 예술인, 대학교수 등 개혁적 시민그룹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규모 지지선언을 통해 전면에 나서고 있다.

또 소방인, 기능장, 간호인 등 각계 직능 보건단체의 지지 선언도 계속돼 설 이후 이재명 후보 지지도 상승의 청신호가 될 전망이다.

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농업단체인 '농업농촌먹거리푸드플랜' (농업푸드플랜) 1,000명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“국민 먹거리기본법 제정과 국가먹거리 종합 전략, 도시상생 먹거리 공약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” 고 선언했다.

농업푸드플랜은 김준규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, 이장호 전 전국농민회총연맹부위원장, 송병주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사장, 김형국 전국 농촌목회자협의회연대 대표, 정상준 전농 산청군농민회장 등이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.

농업푸드플랜의 상위조직인 '시민연대' 는 설 이후 전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, 300여개 직능특별위원회가 총결집해 이 후보 지지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.

또한, 청년 예술인들의 조직체인 '예술인연대' 를 기반으로 한 청년 예술인

2,520명도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후보의 문화예술정책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.

권용만 예술인연대 대표, 조화연 청년위원장, 정경모 한국예총 정책본부장 등 청년 예술인들은 “이재명 후보는 공공문화기관에 직접 예술인들을 고용하는 등 실질적인 예술인 복지를 실천하며, 문화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 주었다” 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.

영·호남지역 102개 대학 교수와 연구자 1,200명도 지난 27일 “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책임자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” 고 선언했다. 교수단의 이 후보 지지 선언은 부산, 대구, 전주, 광주시 등 4곳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, 향후 충청, 경기, 강원을 거쳐 수도권 대학교수까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.

이외에 조종묵 전(초대) 소방청장, 신열우 전(제3대) 소방청장, 조성완 전 소방방재청 차장, 박청웅 전 전남소방본부장, 이성묵 전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, 장인수 전 노원소방서장 등 전직 소방지휘관과 소방인 424명도 지지 대열에 합류했다.

한국기능장연합회 어수연 회장을 비롯한 50명의 한국 기능장들도 이 후보 지지에 나섰다. 한국기능장연합회는 우리나라 최고의 숙련기술 국가기술자격인 ‘기능장’ 자격을 취득한 23개 분야 28개 직종, 약 3만 6,000여 명의 기능장이 모여있는 대규모 직능단체이다.

김병욱 선대위 직능본부장(재선 국회의원·분당을)은 “농업농민, 예술인, 영호남 교수님, 각 직능인들의 지지는 3월 9일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는 데 큰 힘이 될 것” 이라면서 “개혁적인 시민그룹, 직능단체와 유기적인 결합으로 이재명 후보가 꿈꾸는 대전환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” 이라고 말했다. (끝)

[첨부] 행사사진





\* 세부문의 : 직능본부 한진만 팀장 010-8887-6298